

‘전주예술놀이축제’ 27~29일 개최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일원서 국제포럼·예술놀이·전시·워크숍·공연 등 진행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오는 27~29일 3일간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2024 전주예술놀이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2024 예술로 어울림 - 특화선도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축제는 개막식, 국제포럼, 전시, 워크숍, 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테마이자 전주만의 예술교육 브랜드 '예술놀이(Artplay)'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존재하는 '교육'보다는 예술인과 함께하는 창의적 활동에 방점을 찍고, 예술의 원시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담아 고안한 개념이다. 축제 1일차인 27일 열리는 '제6회 예술놀이 전주 국제포럼'에서는 한국(전주)과 독일, 핀란드, 호주 4개국의 전문가 및 예술가들이 '내일의 창조자들: 예술놀이세대(Creators of Tomorrow: Artplay Generation)'라는 주제로 각국의 예술놀이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포럼 참석을 위해 사이먼 스페인(올댓 위아 대표)과 카이 후오타리(카렐리테흐다스 매니징 디렉터)가 직접 전주에 방문할 예정이다. 또 에니아 위그만(어린이예술센터 프로젝트 어시스턴트)과 바바라 렌즈(홀름즈 포름 교육·연구부서 교육 큐레이터), 그리고 지니 리(아트플레이 어쏘시에이트 프로듀서&시그널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가 온라인 연사로 참여한다. 이어 28~29일에는 한국연극협회 전주지부와 협력하는 단막극 페스티벌이 팔복예술공장 일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주의 문화예술교육을 '예술놀이'라는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문화예술계 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과 예술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 전주예술놀이축제 포스터

/장은성 기자

남원아트센터, 한국철예가회 정기전 개최

남원아트센터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옻칠 공예가들 모인 한국철예가회에서 주최하는 정기전이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5일간 열린다. 한국철예가회는 전국 각지에서 전통 옻칠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옻칠 공예인들이 함께 작품활동과 학문적 정보를 교류하는 단체다. 해로 창립 34주년을 맞이한 한국철예가회는 남원의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추진을 기념하고 옻칠 공예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남원에서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였으며, 전시 관련 사항은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672)



나 남원아트센터(063-634-2204)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철예가회의 회장인 국가

무형유산 정수화 철장을 비롯하여 원로작가 박대웅, 국가무형유산 최상훈 굽음장(나전철기), 통영옻칠미술관 김성수 관장, 원주옻칠공예관 임대영 관장 등 무형유산, 명장, 교수 그리고 현대 작가들까지 총 46명의 옻칠 공예인들이 참여한다. 또한 남원의 옻칠 목공예를 대표하는 <남원전국옻칠목공예대전> 수상작도 함께 전시되어 의미를 더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옻칠 공예가들이 모인 한국철예가회 정기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옻칠과 목공예의 도시인 남원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남원에서 전통을 잇는 명인들의 작품과 개성 넘치는 현대 작가들의 예술성이 함께 어우러진 옻칠 공예의 진수를 만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투 기자

고창문화관광재단, 10월 13일까지 '소식지 찍고 음료받자' 이벤트 진행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은 23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소식지 찍고 음료받자'라는 소식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소식지(고창! 문화를 읽는 창)을 통해 고창의 문화와 이야기를 널리 알리며, 기존 구독자와 신규 구독자 유입을 목표로 기획됐다. 참여 방법은 소식지를 읽고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 또는 인상 깊었던 페이지를 찍거나 캡처하여 네이버 폼 이벤트 양식에 업로드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 보상은 10월 23일 추첨을 통해 81명에게 음료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지식살롱 6회차 강연... 이창길 대표 '서울을 따라 하지 않는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신화를 쓴 이창길 대표가 '서울을 따라 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전북지식살롱(시즌2)'(이하 지식살롱) 6회차 강연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5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지식살롱 강연을 진행한다. 참여 신청은 포스터 내 QR 코드 또는 신청 링크(han.gi/5PAPO)를 통해 가능하다. 강연 내용은 인천 구도심 상권을 성공적으로 부활시킨 '개항로 프로젝트',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실전 팁 등 이창길 대표가 20여 년 동

간 진행한 로컬 프로젝트 사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창길 대표는 영국에서 경영학과 사회학을 전공하고, 국내 지역 자원을 활용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로컬 기획 전문가다. 주요 활동으로는 2008년 '독재 펜션'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에 제주도의 100년 된 가옥을 개조해 다양한 기업, 전문가, 크리에이터 등과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인 '토리코티지'를 만든 사례가 있다. 대표 저서로는 이창길 대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링과 마케팅 전략을 담은 '로컬의 신'을 출간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어른이들 위한 소리인형극 '월매년'

전주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서 24일 개최

소리인형극 춘향전 시리즈2 '월매년'이 오는 24일 저녁 7시 30분 전주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이에 따르면 '춘향전'은 소설이나 영화의 형태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작품이다. 반면, 춘향전의 원본이자 전통 판소리인 '춘향가'를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 이에 조민지 아트컴퍼니는 판소리의 문학적, 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대중들에게 전통판소리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사실 속에 담긴 사람이 사는 모습과 소소한 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소리인형극'을 제작한 것. 2022년 첫 번째 소리인형극 '춘향전'을 통해 춘향가와 이몽룡의 이야기를 선보였다. 이번이지만 누군가를 책임질 수 없었던 어린 몽룡의 모습부터 어사가 되어 사랑하는 이를 구하는 멋있는 사내가 된 몽룡까지 만나 볼 수 있었다. 전통 판소리의 음악과 배우들의 호쾌한 연기와 섬세한 인형 조종을 통해 재미있게 그려내며 호평을 받았다. 이후 2024년 두 번째 소리인형극 '월매년'은 사실 속 조연인 '월매'를 조명했다. 인간미 넘치는 사람, 모성애가 넘치는 엄마로서 다양한 모습과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담아냈다. 딸을 품에 안고 잘 키우겠다며 다짐하는 엄마의 모습, 딸의 사랑과 이별을 바라보며 더 기뻐하고 더 속상해지는 모습, 딸을 아파게 한 사내를 미워하는 모습까지 부모의 마음을 여과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인형극 특유의 순수하고 깨끗한 감



성과 샌드애니메이션을 통해 판소리 가사의 전달력을 높였으며, 배우들의 맛깔스러운 연기를 통해 듣고 볼거리가 많은 작품이 될 전망이다. 제작자 조민지씨는 "이번 작품을 통해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다양한 시선을 마주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취지를 전했다. 한편 좌석은 전석 2만원으로 이상컴퍼니(063-909-0231) 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이탈리아에 한글서예 전통 알린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파브리아노 종이박물관서 전시·홍보행사 추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9~28일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종이박물관에서 한글서예 전시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직위에 따르면 2024년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한글서예를 이탈리아에 홍보하기 위해 이탈리아 파브리아노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축제인 'Carta e Cultura(종이는 문화다)' 행사에 참여한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문화행사로 시작된 서예특화 비엔날레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면서 28년간 세계서예인의 축제라는 명성과 위상을 쌓아오고 있다.

특히 국제적인 행사이자 세계서예인들의 축제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28년 동안 제14회 행사를 추진해 오면서 다양한 서예 명작들을 통해 주목받는 행사가 됐다. 이에 조직위는 파브리아노 유네스코 창의도시 축제에 참여, 우리의 자긍심이 담긴 한글서예의 무형문화유산로서의 가치를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조직위는 이탈리아 방문 기간 동안 한국 서예의 세계화와 국제교류를 위해 이탈리아 FeMo Contemporary Calligraphy(회화 니콜라 피치올리) 단체와 협약을 맺기로 했다. 페이모 컨템포러리 캘리그래피 협회는 이탈리아의 전문 서예작가들로 구성, 2000년 피렌체에서 설립된 전문단체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